

매일 만나

2022. 4.

왕상 4~13장



"QT 매일 만나" 는

Quiet Time 의 첫글자인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입니다.

매일 만나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름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04

APRIL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MEMO

TO DO LIST



행복하게 하는 복음

〈그리스도인의 성공〉

세계적인 외과의사 하워드 캘리는 의대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첫날에 다음과 같은 일기를 썼습니다.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의 어떠한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말아주소서."

캘리는 세계적인 외과의가 되었지만 이것은 그가 바라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흠이 없는 도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웰츠 남작은 남아메리카 동북부인 기아나 지역을 돌보러 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작위와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를 대비해 굳이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사람들의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귀족의 작위나 수많은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나는 세상의 모든 허영을
예수님의 발 아래 바치고 떠날 것입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은 마지막 은퇴설교에서
복음은 좋은 차와 좋은 집을 갖게 해주는 축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 그 자체에 있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살아온 삶의 열매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복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Holy Bible survey

열왕기서

이상호 목사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열왕기서 하는 역사적인 내러티브로서 다윗 왕 통치의 마지막 때로부터 여호야긴이 바벨론 감옥에서 출옥한 때까지를 역사적 배경으로 삼아 이스라엘 남북 왕국의 역사와 왕들의 업적과 실패를 조명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의 고난과 역경, 회개의 필요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 또한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게 된 동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탈무드는 열왕기의 저자를 예레미야로 보지만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기록연대는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여호야긴이 풀려난 이후부터 1차 포로 귀환 이전인 B.C.561~537년 경으로 볼 수 있다.

1. 기록목적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는 외부적인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들의 신앙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따라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모습이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며, 따라서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저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회복의 소망을 주고 있다. 바벨론에 끌려 왔던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풀려나 여생을 편안하게 보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회복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2. 역사적 정황

앗수르와 바벨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열왕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40명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열왕기 저자는 그 왕들과 지도자들의 부패와 종교적 타락으로 두 왕국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래도 차이점은 있다. 북 왕국은 왕조가 자주 바뀌어 9왕조가 통치하였지만, 남 왕국은 한 왕조가 모든 기간을 통치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악했지만, 남 왕국에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시야, 아사리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와 같이 좋은 평가를 받은 왕들이 있었다. 그들은 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며,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이 산당까지 제거한 훌륭한 왕들도 있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부터는 장막보다는 산당에서 예배를 더 많이 드렸는데, 이런 전통을 없애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한 후 산헤립이 파견한 랍사게의 심리전으로 곤욕을 치렀고, 요시야는 산당을 건드린 후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살해당하였다. 그럼에도 열왕기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산당은 허물어져야 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은 백성들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징표가 되는 것이다.

4. 신학적 주제와 메시지

1)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은 열왕기의 신학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열왕기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를 보여준다. 이스라엘 왕들도 이 언약을 잘 지킬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왕국의 몰락은 이 의무를 잘 이행하지 못해서 일어났다고 회고하고 있다.

2) 회복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

다윗 언약에 들어 있는 영원성은 한 개인의 집안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열왕기는 다윗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는 것으로 기록한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도 여호와와 소망을 갈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언약 때문이다.

3) 심판과 회개

통일 왕국이 솔로몬 이후 분열된 것은 솔로몬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한발 더 나아가 분열된 두 왕국이 멸망한 것도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런데 심판과 함께 강조되는 것은 회개이다.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선하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자 하실 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다.

5. 구조

1) 다윗의 쇠퇴와 솔로몬의 상승(왕상 1:1-2:46)

- 다윗의 쇠퇴(1:1-4)
- 아도니야의 즉위 시도(1:5-10)
- 솔로몬의 즉위(1:11-52)
- 다윗의 솔로몬 권면(2:1-9)
- 다윗의 죽음(2:10-12)
- 솔로몬의 정권 확보(2:13-46)

2) 솔로몬의 통치(3:1-11:43)

- 하나님의 나타나심(3:1-15)
- 지혜의 솔로몬(3:16-4:34)
- 솔로몬의 성전과 궁궐 건축(5:1-7:51)
- 성전 헌당(8:1-66)
- 하나님의 나타나심(9:1-9)
- 솔로몬이 추구한 것들(9:10-28)
-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10:1-29)
- 솔로몬의 몰락(11:1-43)

- 3) 분열 왕국과 우상숭배(12:1-16:34)
 - 여로보암 집안의 등장과 퇴장(12:1-15:32)
 - 오므리와 아합의 등장(15:33-16:34)
- 4) 엘리야의 사역(17:1-왕하 1:18)
 - 엘리야와 바알 종교(17:1-18:46)
 - 엘리야의 아합 비난(19:1-22:40)
 - 엘리야의 최후의 날들(22:41-왕하 1:18)
- 5) 엘리사의 사역(왕하 2:1-13:25)
 - 엘리사가 엘리야를 승계(2:1-3:27)
 - 엘리사의 기적(4:1-6:23)
 - 엘리사와 포위 된 사마리아(6:24-7:20)
 - 엘리사의 정치적 영향(8:1-29)
 - 예후의 이스라엘 정화(9:1-10:36)
 - 아달랴와 여호야다(11:1-21)
 - 요아스의 개혁(12:1-21)
 - 여호아하스와 여호아스(13:1-13)
 - 엘리사 최후의 날들(13:14-25)
- 6) 이스라엘의 몰락(14:1-17:41)
 -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14:1-22)
 - 잠시 동안의 부흥(14:23-15:7)
 - 이스라엘의 정치적 소용돌이(15:8-31)
 - 유다의 정치적 연합(15:32-16:20)
 - 이스라엘의 멸망(17:1-41)
- 7) 유다의 몰락(18:1-25:30)
 - 히스기야의 의로운 통치(18:1-20:21)
 - 므낫세와 아몬의 악한 통치(21:1-26)
 - 요시야의 의로운 통치(22:1-23:30)
 - 유다의 쇠퇴(23:31-24:20)
 - 바벨론이 유다를 파괴함(25:1-26)
 - 여호야긴 이야기(25:27-30)

01

금요일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왕상 4:20-28

새찬송가 382장

20 유대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이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1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22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삼십 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육십 고르요

23 살진 소가 열 마리요 초장의 소가 스무 마리요 양이 백 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24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딩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므로 그가 사방에 돌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25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대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26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사만이요 마병이 만 이천 명이며

27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28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말씀 암송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 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매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스 4:20)



20~23절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그 나라들이 섬겼더라

21절의 강은 사무엘하 10장 16절에서 약속하신 유브라데 강을 의미하고, 블레셋 사람의 땅은 지중해 연안을, 애굽 지경은 이스라엘 남쪽 경계를 표현입니다. 이 경계는 국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힘이 미치는 통치 영역, 솔로몬 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 지역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솔로몬의 통치 말년까지 속국이 되어 조공과 섬김을 계속하였고, 22절의 밀가루의 양은 12,700kg의 빵을 만들어 약 14,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Thenius). 이처럼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24~28절 사방에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평안히 살았더라

이스라엘이 풍요로워진 것은 솔로몬이 광대한 영토를 다스린 결과였습니다. 속국들이 바치는 조공으로 왕실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부유해졌습니다. 솔로몬은 팔레스틴 전역에 퍼져있는 이방 국가들의 모든 왕들을 다스릴 정도로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역대상 22장 9절의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풍요와 번영,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바라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부족함 없는 은혜를 공급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Q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떤 영역입니까?

02

토요일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왕상 4:29-34

새찬송가 428장

29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30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31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으므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32 그가 잠언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 편이며
33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34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말씀 암송 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사 2:2)



29~34절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룬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드러내는 활발한 저작 활동과 모든 지혜자들과 왕들보다 뛰어나 왕들을 다스렸던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 분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올바른 지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솔로몬은 바로 이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들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Blank rounded rectangular area for writing the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03

주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왕상 5:1-12

새찬송가 67장

- 1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 2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 3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 4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 5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 6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샅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 7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 8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재목과 잣나무 재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 9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 10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재목과 잣나무 재목을 주매
- 11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이만 고르와 맑은 기름 이십 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 12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말씀 암송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 1:5)



1~12절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먼저 히람 왕이 사절을 보내어 축하해주었습니다. 이는 히람왕과 다윗 왕 사이에 우호적 외교관계가 지속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실질적 성전 건축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성전 건축의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게 하셨고, 다윗과 친분이 있는 두로 왕 히람을 준비해서 사용하심으로 다윗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히람왕에게 감사와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한 사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두로 왕 히람은 크게 기뻐하며,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역대하 2장 11절에서 히람왕은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찬양하였습니다. 이 찬양함은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는 의미로 이방인이었던 히람이 하나님을 찬양한 사건으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관계와 나라와 왕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생의 흥망성쇠와 나라의 부흥과 발전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Q 아름다운 관계와 인생의 승리를 위해 더욱 사모하며 바라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04

월요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왕상 5:13-18

새찬송가 312장

13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삼만 명이라

14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15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칠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팔만 명이며

16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삼천삼백 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17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18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재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말씀 암송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 4:19)



13-1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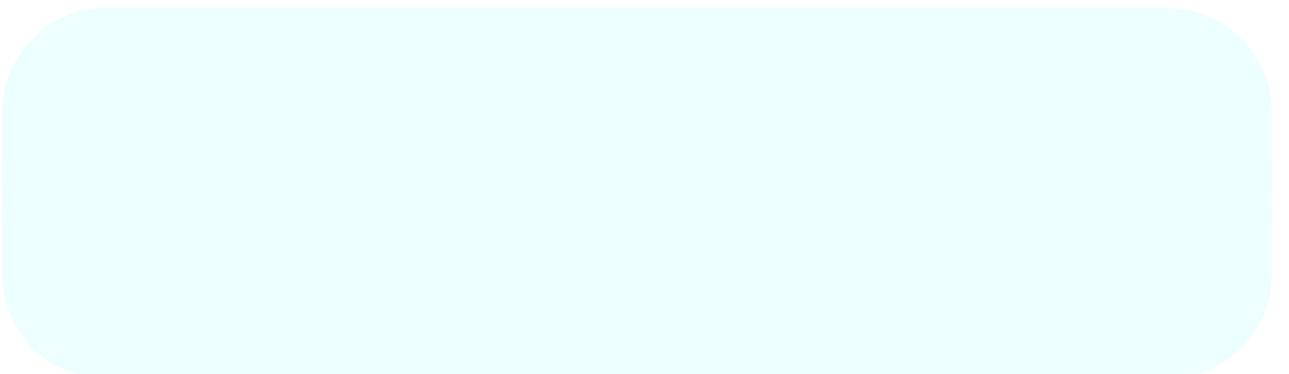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삼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히람의 기술자들을 도와 벌목에 도움을 줍니다. 아도니람의 지휘하에 만 명씩 석 달에 한 번 윤번제로 일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집에서 자유롭게 자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짐꾼이 칠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팔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삼천삼백 명이나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한 일꾼들이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18절

집은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전도 튼튼하게 건축하려면 기초 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을 뜨는 자 팔만 명을 동원하여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 석으로 놓습니다. 솔로몬이 다듬은 기초 석의 크기는 한 변의 길이가 4.5m(10규빗) 혹은 3.6m(8규빗)의 정방형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성전 기초에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사용한 목적은 그 돌이 지니고 있는 단단함 때문입니다. 실로 그 '크고 귀한 돌'은 평화의 기초 석이 되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을 간직하여, 어떤 시련과 환란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05

화요일

성전을 건축하니

왕상 6:1-13

새찬송가 249장

- 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사백팔십 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사 년 시브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 2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육십 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삼십 규빗이며
- 3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이십 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 서부터 십 규빗이며
- 4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불박이 창문을 내고
- 5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 6 하층 다락의 너비는 다섯 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여섯 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일곱 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 7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 8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 9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서까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 10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 11 여호와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 12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 13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말씀 암송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마 3:14-15)



1-6절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사백팔십 년에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이 성전은 여호와와의 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설계하셨습니다. 성전의 구조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하여 주신 바에 따른 것이며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넘긴 것입니다(대상 28:11-12). 대체적인 구조에는 성막과 같아 동편을 향하게 하였으며 현관, 지성소, 성소 등을 그대로 재현하여 성막이 지닌 영적인 의미를 계승하고자 하였습니다.

7-10절

이 성전에는 기초 석이 필요한데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기에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해 등을 상징하는 거룩과 평화의 장소로서 성전은 그 성격에 부합되도록 건축 과정에서도 평화로움과 정숙함과 거룩 성이 유지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사용된 자재는 돌, 목재, 금, 놋, 철 직물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최상의 것, 최양질의 것들로서 지극히 엄선된 재료였습니다.



“존전의식”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writing an answer.

06

수요일

성전 내부장식

왕상 6:14-38

새찬송가 600장

- 14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 15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 16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이십 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 17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사십 규빗이며
- 18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 19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 20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이십 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 21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 22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 23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십 규빗이라
- 24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다섯 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십 규빗이며
- 25 다른 그룹도 십 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 26 이 그룹의 높이가 십 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 27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 28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 29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 30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 31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오분의 일이요
- 32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 33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사분의 일이며
- 34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 35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 36 또 다듬은 돌 세 켤레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켤레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 37 넷째 해 시브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 38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칠 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말씀 암송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행 3:6)



14-36절

성전 외부공사를 마치고 이제 본문에서부터는 내부공사를 하는데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성전 뒤쪽도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으로 내부를 입혔기에 돌이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안에 내소 곧 지성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두도록 했습니다. 언약궤는 자기 백성과 친교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징 하는 지성물입니다. 이 언약궤에는 본래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한 오멜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 있었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돌판 만이 남아 있었습니다(왕상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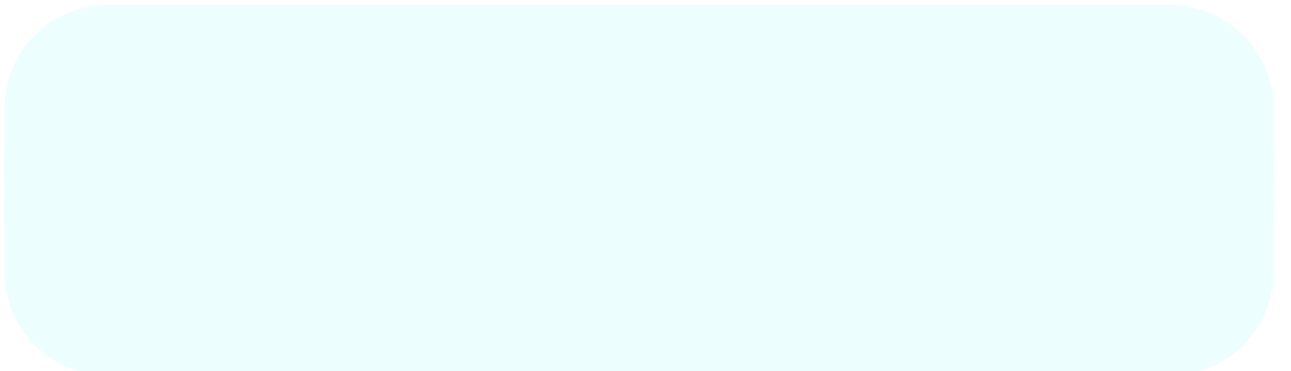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금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성전의 많은 부분을 금으로 입혀 아름답게 치장하였습니다. 금은 녹슬지 않고 변치 않는 속성을 지님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찬란함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으로 입혀진 성전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37-38절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만에 완공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완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명령하셨을 때에도 성막의 규모, 재료, 만들 사람까지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설계대로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역사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07

목요일

자기의 왕궁을 십삼년 동안 건축하여

왕상 7:1-12

새찬송가 288장

- 1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십삼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 2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백 규빗이요 너비가 오십 규빗이요 높이가 삼십 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 3 기둥 위에 있는 들보 사십오 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열 다섯이요
- 4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 5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 6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오십 규빗이요 너비가 삼십 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 7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 8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 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 9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켜는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 10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십 규빗 되는 돌과 여덟 규빗 되는 돌이라
- 11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12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말씀 암송 그러므로 한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 5:12)



1-1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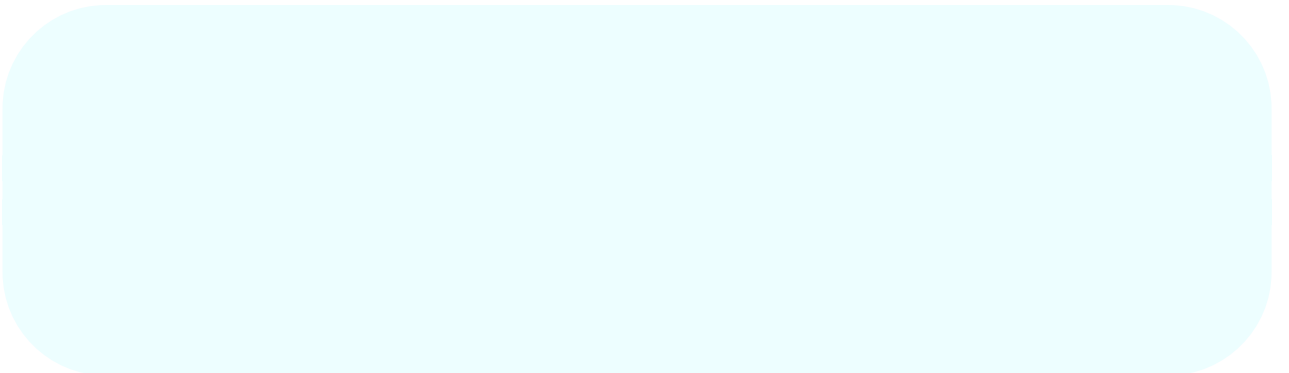
솔로몬은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왕궁에 대한 묘사는 12절만 기록합니다. 성전에 대한 기록은 6장 전체와 7장 13절부터 51절 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왕궁건설은 성전 건설하는 것의 일부분이고 항상 포함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13년이나 걸려 지을 만큼 웅장한 왕궁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식양대로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궁을 건축하면서 많은 시간과 국력을 들였습니다. 이는 주신 복을 잘 누려야 할 의무가 그 안에 내재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말년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그는 성전을 봉헌하고 궁궐을 자신의 왕권을 만방에 증거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다 후에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 나라와 동맹을 통해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려는 속셈으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 왕궁에서 살았으며, 극도의 사치와 낭비가 왕궁의 일상생활이었고, 우상 숭배의 범죄가 자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의 가증한 죄악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데 동안 솔로몬은 여호와만을 온전히 섬기는 유일 신앙을 상실하고 신앙의 정절을 잃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자족하며 복을 헤아려 더 겸손해야 합니다.



08

금요일

눅쇠 대장장이 희람

왕상 7:13-26

새찬송가 338장

13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14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눅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눅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15 그가 눅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십팔 규빗이라 각각 십이 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16 또 눅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빗이요 다른쪽 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빗이며

17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땀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일곱이요 저 머리에 일곱이라

18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19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20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 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이백 개가 줄을 지었더라

21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22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23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십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24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열 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러었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25 그 바다를 소 열두 마리가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26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이천 빛을 담겼더라

말씀 암송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왕상 7:21)



13-22절 낚시 대장장이 히람과 두 낚기둥

솔로몬은 성전 공사를 위하여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옵니다. 그는 두로 사람 아버지와 납달리 지파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납달리 사람임을 말하는 것은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람은 낚 일에 대해서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충만한 전문가였습니다.

히람은 제일 먼저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만들었습니다(15-22). 이 두 기둥은 성전의 현관 앞 좌우편에 세운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좌편의 기둥인 보아스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고, 우편의 기둥인 야긴은 '그가 일으키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조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반영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존성을 상징합니다.

23-26 낚을 부어 만든 바다

성전 뜰에서 사용하는 물을 위해서는 많은 낚으로 만든 구조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직경 10규빗, 높이 5규빗, 2천bat(약44,000리터)을 담을 수 있는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정계를 시행하는 데 전혀 부족하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낚바다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Q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Blank rounded rectangular area for writing an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09

토요일

늦 받침 수레와 물두멍

왕상 7:27-39

새찬송가 303장

- 27 또 늦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네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 28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 29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 30 그 받침 수레에 각각 네 늦바퀴와 늦축이 있고 받침 수레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 31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 32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 33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테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 34 받침 수레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 35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의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 36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 37 이와 같이 받침 수레 열 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 38 또 물두멍 열 개를 늦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사십 배를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네 규빗이라 열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 39 그 받침 수레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말씀 암송 이와 같이 받침 수레 열 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왕상 7:37)



27-39절 놋 받침 수레와 물두멍

27절 이하에는 제사용 기물로서 성전의 외부 기구를 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물들의 제작에 놋이 쓰이고 있습니다. 놋은 성전 내부 장식에 사용된 금에 비해 투박하고 서민적이지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이 하나님의 침범할 수 없는 순전함과 영광을 상징한다면 놋은 죄악된 인간과 함께 하시고 체휼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놋으로 만들어진 성전 기물들은 대개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것들이었고 사람들이 금에 비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27절 이하에서 39절은 성전 뜰 좌우편에 놓인 열 개의 물두멍과 그 받침의 제작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물두멍 받침에 새겨진 문양은 사자, 소, 그룹과 화환이었습니다. 이들 각각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담대함, 충성됨, 신령함,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거룩을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38-39절은 히람이 물두멍을 제작한 것을 다룹니다. 물두멍은 희생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물을 정결하게 하는 물을 담는 용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거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Q 날마다 정결하게 유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Blank space for the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10

주일

성전 기구들

왕상 7:40-51

새찬송가 450장

40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의 모든 일을 마쳤으니
41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42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의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사백 개와
43 또 열 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의 열 개의 물두멍과
44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열두 마리와
45 솔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46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숙곳과 사르단 사이의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47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48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단과 진설병의 금 상과
49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 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50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손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쩌귀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쩌귀더라
51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말씀 암송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왕상 7:51)



40-51절 성전 기구들

40절에서 47절은 히람이 만든 많은 성전 기구들이 소개됩니다. 물두멍, 부삽, 대접들을 만들었는데 성전 곳곳에 심히 많은 기구들을 만들었고, 놋 무게는 능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48절에서 50절에는 성전 내부의 금기구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전 내부의 모든 기구는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분향단이나 진설병을 담는 금상, 등대부터 문과 문설주를 연결하는 돌쩌귀까지 모든 기구들은 금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금을 사용한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까지 어그러짐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성전의 온전함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작은 부분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성전을 세워나가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51절에는 솔로몬과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요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정과 그에 따르는 실제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헌신하는 자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더욱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또 이 말씀에는 솔로몬이 그 부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 물건들을 성전 곳간으로 가져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나온 여호와의 전 곳간에 안치된 '은과 금과 기구들'은 성전과 거기 포함된 기물들을 보조하는 것으로 물건을 수리하거나 긴급할 때 또는 성전 봉사에 끊임없이 필요한 비용을 위해 마련한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성전 건축뿐 아니라 이후의 관리에까지 준비했음을 보여줍니다.



Q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믿음의 영역은 어디인가요?

Blank space for writing the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11

월요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왕상 8:1-11

새찬송가 200장

- 1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 2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 3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 4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 5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 6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 7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 8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니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 곳에 있으며
- 9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 10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 11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말씀 암송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갈 3:11)



1-11절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다

성전이 다 만들어지고 솔로몬은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모였고,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돌판은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었습니다. 원래 궤 안에는 아론의 싹 난 지팡이와 만나 담은 항아리도 있어야 했지만 돌판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서 여러 전쟁도 있었고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한 적이 있었고 모세의 때와 솔로몬 때의 시간 간격이 짧지 않아서 보관이 어려웠지만 돌판만은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궤가 지성소에 놓고 제사장들이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난 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인정하신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모든 수고를 받으시고 거기 거하시겠다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성전이 그 의미를 찾고 제구실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지어진 것도 '건물'일 뿐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귀한 재료로 정성 들여 지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다면 헛수고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고와 진심을 기억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임한 것은 그들의 수고의 결과보다는 다윗과의 언약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의 수고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Q 신자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인가요?

Blank space for the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12

화요일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왕상 8:12-21

새찬송가 393장

12 그 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13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로소이다 하고
14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
중이 서 있더라
15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16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17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
음이 있었더니
18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19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
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20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21 내가 또 그 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말씀 암송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삼하 7:12,13)



12-21절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봉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언약궤 안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성막보다 상대적으로 영구한 성전을 건축하고, 감히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겸비한 심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봉헌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열심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 언약궤를 안치했습니다.
진정한 성전의 완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13

수요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왕상 8:22-30

새찬송가 383장

- 22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 23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 24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 25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 26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 27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 28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 29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 30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암송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지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신 7:9)



22-30절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25절)"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의 불순종, 그리고 구원의 서정 중 '견인'에 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Blank rounded rectangular area for writing the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14

목요일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왕상 8:31-43

새찬송가 259장

31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32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33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34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35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 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36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37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꺾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는지 막론하고

38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40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41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42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 암송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33-34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부터 솔로몬 시대의 번영기에 이르기까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참담한 패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35-36절

솔로몬은 가뭄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사해 주실 것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37-40절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세계 열방을 비롯한 온갖 자연현상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41-43절

유대인들의 배타성과 편협성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주께 부르짖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복음은 지역과 인종, 문화 등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만민에게 복음 전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Blank rounded rectangular area for writing the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15

금요일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왕상 8:44-53

새찬송가 246장

44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45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46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라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47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48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49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50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시라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51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52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53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말씀 암송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 10:9)



44-53절

솔로몬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아픔과 회복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 137편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전의 솔로몬이 어떻게 포로 시대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그릴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에 따른 포로됨에 관해서는 이미 오래 전 모세에 의하여 경고된 바 있기 때문에(레 26:33,44 ; 신 28:25,36), 솔로몬은 앞으로 다가 올 일들에 대해 깊은 우려와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Q 언약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생각해 봅시다.

16

토요일

솔로몬의 축복

왕상 8:54-61

새찬송가 420장

- 54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
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 55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 56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
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 57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
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 58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 59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
보사
- 60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
를 원하노라

말씀 암송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왕상8:58)



25-29절 독신으로 지내야 할 때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한다(창2:18)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통해서 생명의 복을 이어받게 하셨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권면한다. 그 이유는 2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곧 임박한 환란 때문이다.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환란이 임박해 있었다. 하지만 결혼을 약속한 배우자가 있다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권면한다. 결혼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36절)

30-40절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라

바울은 결혼할 때 우리가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위험성을 언급한다. 그것은 바로 34절처럼 주의 일을 생각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마음을 두기보다 세상 일과 남편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다 가족과 신앙은 분리되지 않는다. 단 우리의 마음을 가장 두어야 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족에게 사로잡힐 바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모든 것을 다 주 안에서 해야 한다.



Q 당신은 가정과 신앙 사이에 바른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까?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the answer.

17

주일

성전 봉헌식

왕상 8:62-66

새찬송가 575장

- 62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 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63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이만 이천 마리오
양이 십이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성전의 봉헌
식을 행하였는데
64 그 날에 왕이 여호와와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
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와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
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65 그 때에 솔로몬이 칠 일과 칠 일 도합 십사 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
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66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
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말씀 암송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왕상8:66)



1-3절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고린도 전서 8장은 우상의 문제를 다룬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팽배했고, 시장에는 이방신의 제사에 드리는 음식들이 거래되곤 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내세우며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으며 다른 성도들과 논쟁과 갈등을 유발시켰다. 그러자 바울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죄이며 지식보다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4-8절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신전의 제사에 쓰인 제물이더라도 그 제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하나님 한 분 밖에 없기 때문에 이방신의 제사에 드러진 예물을 먹지 않을 필요는 없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낳으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의 목적이 되신다.



Q 나와 가정, 공동체에 조심해야 할 독초와 쑥의 뿌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18

월요일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왕상 9:1-9

새찬송가 187장

- 1 솔로몬이 여호와와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 2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 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 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 4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 5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 6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 7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 8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 9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말씀 암송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 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왕상9:3)



1-2절 참된 회계의 조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라 가운데 흩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이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 나의 죄를 기억하면서 부터이다. 즉 말씀에 비추어 자기성찰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 여호와께 향해야 한다. 즉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

3-7절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쫓겨가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고 이끄셔서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온전히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신다.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할 것이다.

8-10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Q 혹시 기억나는 죄나 우상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19

화요일

눈에 들지 아니하여

왕상 9:10-14

새찬송가 333장

- 10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이십 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11 갈릴리 땅의 성읍 스무 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12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13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14 히람이 금 일백이십 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말씀 암송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14:14)



11-14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명령은 결코 저 하늘에 있거나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려운 것이 아니며 지키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이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 주셔서 말씀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15-20절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우리 앞에는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놓여있다. 인생은 선택이다. 순종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며 불순종은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각을 선택할지 성령의 생각을 택할지를 정해야 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롬8:6)



나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시도조차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Blank rounded rectangular area for writing an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20

수요일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왕상 9:15-28

새찬송가 585장

15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와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므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16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17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벰호론을 건축하고
18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19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20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21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22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23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오백오십 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24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25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26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 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27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28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사백이십 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말씀 암송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잠29:4)



15-28절

솔로만의 강제 노동 정책(15-23절), 종교 생활(24-25절), 새 상업 함대(26-28절)에 관한 짧은 기사가 솔로몬에 관한 저자의 구체적 묘사를 확증한다.

15절

'역군' - 솔로몬은 가나안 족속에게 자신의 건설 계획에 따라 일할 것을 요구한다(수17:13; 삿1:28,30)

'밀로' - 이것은 돌과 흙으로 산마루 위의 낮은 지점들을 평평하게 만든 대지일 것이다(24절). 이것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다윗 성부터 북쪽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해주었다. 고고학자들은 밀로를 떠받치는 거대한 돌계단을 발견했다.

2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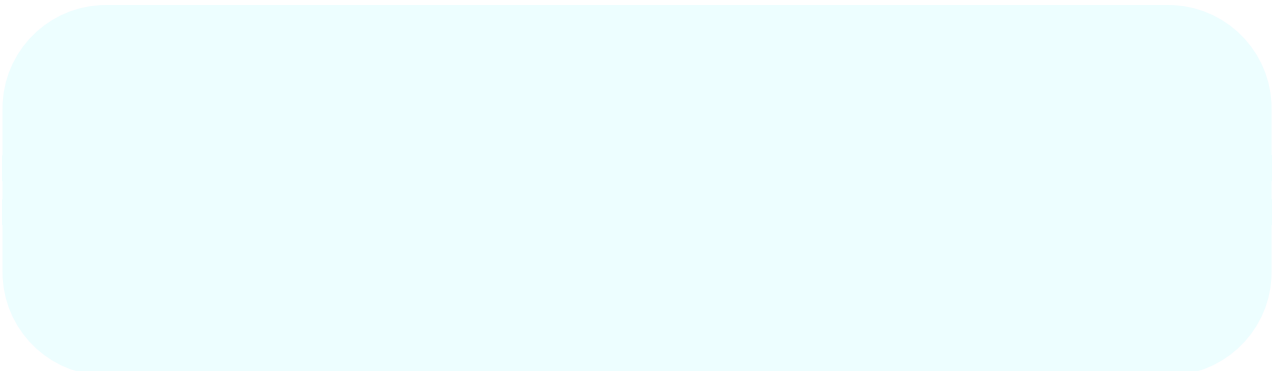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 솔로몬은 레위기 25:42, 46의 약속을 지켰다.

24-25절

솔로몬의 이집트인 아내의 종교 생활에 관한 언급은 그의 모호한 신앙을 묘사한다.



솔로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함이 더 중요함을 묵상하며 현재 나의 삶을 돌아봅시다.



21

목요일

스바 여왕의 시험과 고백

왕상 10:1-13

새찬송가 28장

- 1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 2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 3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 4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 5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 6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 7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 8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 9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시라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 10 이에 그가 금 일백이십 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 11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 12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 13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말씀 암송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왕상10:8)



1절

'스바' - 이곳은 아라비아 남부에 있었던 사바 왕국(오늘날의 예멘)으로 추정된다.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 이것은 솔로몬이 여호와께 예배했기에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높여 주었거나, 그 지역에서 솔로몬의 훌륭한 평판이 여호와께 영광을 가져다주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9절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를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신다는 증거로 해석한다. 여왕의 아름다운 고백은 그녀가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말은 이교도 여왕의 다신교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5:7; 또한 대하2:12; 단3:28-29 참조). 여왕은 여호와를 단지 이스라엘 민족으로 신으로 인식한다. 그녀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만 예배드리기 위해 자신의 신(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왕하5:15-19; 룻1:16-17 참조). 히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 기뻐하지만(5:7), 솔로몬의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는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적실한 지혜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나는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writing an answer.

22

금요일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지라

왕상 10:14-29

새찬송가 620장

14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육백육십육 달란트요

15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客商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16 솔로몬 왕이 쳐서 늘인 금으로 큰 방패 이백 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육백 세겔이며

17 또 쳐서 늘인 금으로 작은 방패 삼백 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삼 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18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19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20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21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22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삼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라

23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지라

24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25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26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천사백 대요 마병이 만 이천 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27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 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이 많이 하였더라

28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29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육백 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백오십 세겔이라 이와 같이 헛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말씀 암송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20:7)



14-29절

'솔로몬의 영광' - 솔로몬의 부와 왕실의 영화에 대한 묘사는 여기서 절정에 이르고 있다. 그는 화려한 왕궁에 거주하며, 국제적인 제국을 지배하는 군주다. 이 제국은 큰 규모의 군대가 보호하고 확장시킨다. 솔로몬의 영화로운 제국에 대한 이 단락의 마지막 묘사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11장)을 불길하게 암시한다.

29절

여기서 솔로몬의 통상은 신명기 17:16-17을 명백히 어기고 있다. 신명기의 구절은 왕들이 말(특히 이집트의 말), 금, 은 등을 모으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한다(14,25절; 9:11, 14, 28). 엄청난 성공을 거둔 솔로몬 왕은 모세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 그 심판은 11장에서 그가 다른 범죄를 추가한 후에 즉시 임할 것이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살펴봅시다.

23

토요일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왕상 11:1-13

새찬송가 543장

- 1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 2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 3 왕은 후궁이 칠백 명이요 첩이 삼백 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 4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 5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 6 솔로몬이 여호와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 7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 8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 9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 10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시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 11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 12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 13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말씀 암송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5:10)



1-13절

솔로몬의 지혜, 명성, 영광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3-10장)은 그의 이방인 아내들에 대한 냉정하고 불길한 고발과 뚜렷이 대조된다(2:4; 9:4-5 참조).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에 덧붙여진 조건을 어기고 있다는 고발이다.

4절

'나이가 많을 때에' - 아내들의 영향으로 솔로몬은 점점 위험에 처한다.

바로 딸과 결혼은 그의 첫 번째 실수였다(3:1; 7:8; 9:24).

'다른 신들을 따르게' - 이것은 단순한 용납이라기보다 실제적인 예배를 의미한다.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 다윗의 모범에서 심각하게 벗어남(6절; 15:3 참조).



Q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까?

Blank rounded rectangular area for writing the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24

주일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일으키시니

열왕기상 11:14-25

새찬송가 267장

14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15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16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여섯 달 동안 그 곳에 머물렀더라

17 그 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18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19 하닷이 바로의 눈 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20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21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22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23 하나님은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24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25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말씀 암송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왕상 11:25)



14~25절 하나님이 대적 하닷과 르손을 일으키심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타락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키실 것이라는 심판의 예언에 이어 에돔 사람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음을 말합니다. 에돔사람은 에서의 후손들로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에돔왕이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게 거절하는 것을 시작으로 갈등이 생겼고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전쟁에서 이겼고 요압이 성인남자들을 죽였던 사건은 에돔사람에게 깊은 상처와 원한이 되었을것입니다. 에돔의 왕자였던 하닷이 어린 시절 애굽으로 도망하여 바로의 은총 속에서 지내다가 솔로몬이 쇠퇴하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르손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는데 솔로몬은 두 대적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됩니다.



Q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Blank rounded rectangular area for writing an answer.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25

월요일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왕상 11:26-43

새찬송가 357장

26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27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28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29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30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31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네게 주고
32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33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34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35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36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37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38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39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40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41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42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사십 년이라
43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말씀 암송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왕상2:12)



26~39절 여로보암의 반란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여로보암은 큰 용사로 요셉 족속의 부역을 관장하는 감독이었는데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됩니다. 아히야는 자신이 입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면서 솔로몬이 다윗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그의 나라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것이며 다윗과 같이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면 이스라엘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0~43절 솔로몬의 죽음

여로보암의 반란을 보고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하자 애굽으로 도망가 솔로몬이 죽기까지 머물렀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40년동안 다스리고 죽어 장사되고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Q 나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26

화요일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왕상 12:1-11

새찬송가 446장

1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2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3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4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멩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메운 무거운 멩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5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삼 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6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7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8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9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멩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10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멩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멩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멩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말씀 암송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멩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멩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왕상12:11)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솔로몬이 죽어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여로보암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 선대왕들의 고역과 멍에가 무거웠으니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5~11절 르호보암과 신하들의 논의

르호보암은 삼일 후에 답하겠다고 돌려보내고 먼저 솔로몬을 섬겼던 늙은 신하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그들의 요구를 들어 좋은 말로 대답하면 영원히 오아의 종이 되어 섬길 것이라고 조언하고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물으니 더욱 강압적인 정책으로 대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Q 지혜를 가진 말과 겸손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27
수요일

유다 지파 외에는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왕상 12:12-20

새찬송가 521장

12 삼 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 르기를 삼 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13 왕이 포학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14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 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15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16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17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18 르호보암 왕이 역꾼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19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20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말씀 암송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왕상2:35)



12~20절 이스라엘의 분열과 여로보암의 즉위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조언대로 행하고 결국 참지못한 백성들은 반발하고 다윗 왕조를 배반하여 여로보암을 북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이는 여로보암에게 계시하신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Q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Blank area for writing the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28

목요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왕상 12:21-33

새찬송가 200장

- 21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십팔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 22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 23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 24 여호와와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 25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느엘을 건축하고
- 26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 27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 28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 29 하나는 벳엘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 30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 31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 32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벳엘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벳엘에서 세웠더라
- 33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벳엘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말씀 암송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요일 5장 21절)



21-24절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북부 지파들의 반역에 대해 르호보암이 취한 행동은 반역을 일으킨 무리들에게 당연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르호보암의 행동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은 하나님이 이미 뜻하신 바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돌이키려는 르호보암의 노력은 왕으로서 정당한 것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르호보암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만류를 듣고 중도에 그것을 포기했기에 망정이지 만일 르호보암이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갔다면 분명 더 큰 재난과 어려움을 자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25-33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높여서 북이스라엘 열 지파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그를 통하여 타락하였던 솔로몬과 교만하였던 르호보암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자 오히려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역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Q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행한 적이 있습니까?

Blank rounded rectangular area for response.

29

금요일

벧엘 제단

왕상 13:1-10

새찬송가 213장

- 1 보라 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벧엘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 2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와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 3 그 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 4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벧엘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 5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와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 6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 7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 8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 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 9 이는 곧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 10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벧엘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말씀 암송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14)



1-10절 여호와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여로보암은 왕국의 분단을 고착화시킴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자신이 친히 백성들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본을 보임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책에 따라오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베엘에서 분향하고 있던 여로보암에게 유다 출신의 한 익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엘 제단 훼파 예언을 선포하게 하시고 베엘의 단이 갈라지고 재가 단에서 쏟아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단에서 분향하고 있던 여로보암이 이런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좋아할리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라고 소리치며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편 손에 이상 증세가 오더니 말라 버려 내민 손을 다시 거두어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집니다. 여로보암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여로보암의 손이 이전처럼 성하게 됩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이 머물던 곳으로 초대하여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여로보암의 초청을 거절하고 오던 길과 다른 길로 돌아감으로써 베엘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Q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있습니까?

Blank rounded rectangular area for response.

30

토요일

누구든지 자원하면 산당의 제사장으로

왕상 13:11-34

새찬송가 267장

11 뱀엘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뱀엘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12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13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에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에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14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나 대답하되 그러하다

15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16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 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17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라

18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19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20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21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23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에 안장을 지우니라

24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25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26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와 말씀은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 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매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27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에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28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29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30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우니라

31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32 그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뱀엘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를 것임이니라

33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34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말씀 암송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



11-34절 여호와와의 말씀을 어기며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을 향하여 베엘의 제단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베엘 제단 훼파 예언을 선포하고는 여로보암의 초청도 거절하고 다른 길로 하여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베엘의 한 늙은 선지자가 자기의 아들로 부터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 관한 소식을 듣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뒤를 쫓아 마침내 한 상수리나무 아래서 쉬고 있던 유다 선지자를 만나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로 하여금 떡과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베엘의 늙은 선지자의 말은 순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거짓을 말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베엘의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 오던 길을 돌이켜 가고 또한 음식과 물을 섭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여 파멸에 이르게 하는 올마와 함정 같은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세상 체제를 풀 가동하여 우리 앞에 함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모두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 미혹을 경계해야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목해야 합니다. 순간이라도 방심하는 모습을 보이면 마귀는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Q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Blank space for writing the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원주중부교회 새벽 QT

매일 만나

2022. 4.

발행인 | 김미열

도운이 | 조문상 최청환
| 한성훈 안광모
| 이상호 박예일
| 김요한 송주원
| 손아론

발행처 | 원주중부교회

T : 033-744-2760 ~1,2

F : 033-744-2763

<http://wjjungbu.org>

